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2월 21일(일) 제1569호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1일 성탄주일에배 24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5일 성탄감사찬양예배

온누리교회가 온 누리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성탄절을 보낸다. 12월 20~21일 성탄주일에배, 24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5일 성탄감사찬양예배를 드린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과 문화 행사도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성탄주일에배’는 12월 20일(토)과 21일(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드린다. 이날 예배에서는 찬양사역팀이 ‘성탄 칸타타’를 한다. 12월 21일(일) 차세대 예배에서는 ‘성탄가정예배 가이드’가 담긴 갑티슈를 선물로 준다.

12월 24일(수)에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열린다. ‘Love Came Down(사랑이 오셨네)’을 주제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서빙고는 오후 7시 30분 본당, 양재는 오후 7시 30분 사랑홀에서 열린다. 부전은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선물’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패밀리 워십, 남양주는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한 구유 이야기’를 주제로 성탄절 콘서트, 영종은 오후 7시 30분 백향목홀에서 ‘Joyful Christmas’를 주제로 성탄전야제를 한다.

‘성탄감사찬양예배’는 12월 25일(목) 1부

오전 9시, 2부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본당에서 드린다(서빙고와 양재 기준). 부천, 수원, 대전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인천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남양주,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오전 11시, 평택은 오전 10시 30분에 성탄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과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 전도대상자를 순예배에 초대해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연말까지 기획하고 실행한다.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초대해서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순예배를 드리면 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온누리 아트비전에서는 정기 회원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개최한다. 2026년 1월 4일(일)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온누리 아트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소품을 작품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절반을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성탄감사찬양예배.

2025-26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1월 5~17일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2025-26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수) 서빙고와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부천 오후 8시, 오후 10시, 수원 오후 8시 30분, 오후 11시, 대전 오후 9시, 오후 11시, 인천 오후 7시, 오후 9시, 평택 9시, 남양주,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1월 1일(목)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부천, 대전 오전 10시, 남양주, 인천 오전 11시에 드린다. 수원, 평택,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신년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1월 5일(월)부터 17일(토)까지는 2026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이어진다. 나를 따라’를 주제로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R.T.Kendall 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 박지혜 기자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역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사이클론 ‘디트와(Di twah)’로 큰 피해를 본 스리랑카 주민들에게 식수와 식료품, 위생용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의약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복구를 돕는 모금운동도 전개한다.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자

세한 내용은 전화(02-2271-2246)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스리랑카는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저지대와 산간 지역 건물이 무너지고, 연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엄청나다. 대규모 침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

/ 홍하영 기자

대청, ‘크리스마스 블레싱’ 시작

12월 28일까지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12월 20일(토)부터 28일(일)까지 전국 30여 곳으로 흩어진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전국의 지역 교회, 군부대, 그룹홈, M센터 등지를 찾아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 사역이다. 올해는 서울(서초, 강동, 은평 등), 경기(고양, 안산, 파주 등), 충청(단양, 음성, 옥천 등), 경남(진주, 산청, 하동 등), 전라(김제, 남원, 군산 등) 등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이웃 초청 잔치, 어린이 성경학교, 마을 전

도, 새벽송, 노방 찬양, 이주민 연합 예배, 군장병 초청 집회,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등을 한다.

지난 12월 6일(토)부터 13일(토)까지 이어진 ‘사랑앓나눔’은 막을 내렸다. 올해는 서울 시내 주민센터 및 복지관과 협력해서 사역했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 1,100명이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1,075가구에 물품을 선물했다. 이웃들에게 전달한 선물은 온누리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지역 교회와 기관 이름으로 전달했다.

/ 홍하영 기자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1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본당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2월 21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 담임) 설교,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케이크 커팅식, 성탄 칸타타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평택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국내 일곱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젊은 부부와 차세대 양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성탄의 본질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성육신은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 영광과 권리와 능력을 비우시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 아들 설명하는 두 단어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성탄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본질을 나타내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형상만이 그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일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듣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형상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

성육신3.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15~20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통치자로 임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전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단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와 동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유행했던 이단적인 가르침이 ‘영지주의’입니다. 넓게 보면 육은 악하고, 정신과 영은 선하다고 했던 플라톤 철학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성육신을 공격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통 인간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 하나, 천사 같은 존재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자 통로, 통치자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의 근원이자 통로, 통치자로 소개합니다(15~17절).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주권, 권력, 권세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육신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분 안에서 세워진 권세들이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통치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주권 선포의 날입니다.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한 타락한 권세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다시 통치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보좌들, 주권들, 권력들, 권세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는 말씀에서 영어 ‘시스템(System)’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보좌, 주권, 권력, 권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선한 질서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적 권세에 휩쓸린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정세와 권세는 타락하고 악해진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보좌, 주권, 권력,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세우신 선한 질서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권세가 되어버립니다.

성육신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권세의 악한 모습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세상의 악한 권세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육신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길은 단지 ‘탄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육신,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권, 권력, 권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권세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타락한 권세와 권력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14~15절). 죄의 빛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남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갚았다”, “너의 빛은 끝났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갚아야 될 모든 죄 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는 타락한 권세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두 개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곧,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18절에서는 새 창조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옛 창조의 주인이신 분이 만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

다. 여기서 머리란 단순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을 통해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사역, 가정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총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만연했던 영지주의에서는 여러 신, 천사 같은 존재가 모두 신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능력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성과 능력을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20절). 이것이 성육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고후 5:18~19).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몸 된 교회 역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지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만물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물의 으뜸이 되신 사건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육신하신 목적이 계속이루어지도록 나타내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통치자로 임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6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1. 그들은 왜 오래도록 선교헌금을 할까? 2. 그들은 왜 평생 선교를 했을까?

그들은 왜 오래도록 선교헌금을 할까?

황재숙 명예권사, 노국자 권사, 채현석 집사에게 묻다

“그냥.”

세 사람에게 ‘왜 오래도록 선교헌금을 하는지’를 물었더니 공통으로 돌아온 대답이었다. 아무 의미도, 뜻도 없다는 의미의 말이 결코 아니다. 선교는, 선교헌금은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특별함을 ‘그냥’이라는 말로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년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심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황재숙 명예권사, 노국자 권사, 채현석 집사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사실, 질문 자체가 식상해서 물을지말지를 고민했었다. 그렇다고 묻지 않을 수도 없는 질문이었다.

“처음 선교에 관심을 두고, 선교헌금을 작정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세 사람 모두 각자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는 공통된 대답과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선교와 선교사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들 마음의 뿌리부터 분명 선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황재숙 명예권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표현에 깊이 감동하고, 선교헌금 작정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교육받으면서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마음에 꼭 와닿았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선교헌금을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국자 권사는 선교사들의 어려운 현실이 담긴 <선교사의 편지>를 읽고 기도와 후원을 결심했다.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어느 선교사님이 후원이 너무 절실해서 금식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편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낼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했는데, 보내고 나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9시에 동역자들과 함께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



왼쪽부터 황재숙 명예권사, 노국자 권사, 채현석 집사.

면서 매년 선교헌금 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채현석 집사는 젊은 시절 동료 선교사를 돕던 경험이 선교헌금 작정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들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그분들을 위해 조금씩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에 와서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 행사에서 들어주는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헌금은 저에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선교헌금을 향한 마음을 오랜 세월 지키는 것이다. 사실 오래도록 한마음을 지키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었다.

채현석 집사는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마음과 헌신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삶 가운데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의미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이 상황에서 계속 선교헌금을 해도 괜찮을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직장이 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채 집사는 “보상이 반드시 물질로만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평강으로, 또 어떤 이



에게는 삶의 안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가 믿음으로 선교헌금 작정 행사에 동참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황재숙 명예권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 고백을 듣는 내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럴 때일수록 선교헌금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라고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더 큰 믿음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타난 변화를 떠올리면서 황 명예권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날 이후 이들의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둘씩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고치신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감사였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려는 마음

노국자 권사는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교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수님이 두 엽전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을 권할 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우리가 커피 한잔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대접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조금씩 나눠서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채현석 집사는 노국자 권사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했다. 그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되, 그 안에서 믿음을 조금씩 넓혀갈 것을 권면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조금 부담되지만 해볼 수 있겠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려는 마음입니다.”

채현석 집사는 이 마음과 다짐을 훈련에 비유했다.

“내가 1미터를 뛸 수 있는데, 늘 1미터만 뛰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가 성장을 이끕니다. 선교헌금 작정 역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은총, 관심, 하트 풍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선교헌금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랜 세월 선교헌금을 이어오며 깨달은 본질이 그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황재숙 명예권사는 선교헌금을 ‘은총’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시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노국자 권사는 선교헌금을 ‘관심’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내가 드린 선교헌금이 어느 나라로, 어떤 선교사에게 전달되는지를 알면 부담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깁니다. 그 관심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사랑이 되어서 선교헌금으로 이어집니다.”

채현석 집사는 선교헌금을 ‘하트 풍선’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기도 모임에서는 기도를 선교지를 향해 쏘는 미사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선교헌금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따뜻함과 위로, 힘을 전하는 하트 풍선 아닐까요?”

2025 온누리교회 신앙 리포트 '세대를 잇는 복음' 신앙 인식조사

① 신앙의 구조 그리고 가치관 ② 미래 신앙 과제는 무엇인가?

온누리교회 미래 신앙 과제는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 AI 시대의 신앙, 신앙 유산과 교회 이미지



박태성 장로
(온누리교회 미래성장
위원회, 서초A공동체)

온누리교회 미래 성장위원회에서 '세대를 잇는 복음'을 주제로 실시한 '신앙 인식 조사(OFFC, 2025)' 그 두 번째 분석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소속 성도 총 4,490명이 구글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참여했다.

“온누리교회 미래 신앙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을 분석했다. 키워드는 성경적 세계관, AI 시대의 신앙, 신앙 유산과 교회 이미지였다.

'살아내는 신앙'으로 전환 필요

첫 번째 분석 영역은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항목이었다. 응답자 67%가 “삶의 결정을 성경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나, “성경적 가치를 일상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응답은 31.4%로 낮게 나왔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 61.2%,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가 29%였다.

신앙과 일상의 연결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직 일관되게 살기는 어렵다”가 51.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응답이 44.9%였다(그림 1). 이는 말씀의 지식은 높으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세계관적 실천이 약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세대에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전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92.2%로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의 다음 교육 방향은 '배움의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보다 분별, 효율보다 영성

두 번째 분석 영역은 'AI 시대의 신앙 인식'이다. AI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AI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응답 35.5%보다, “인간의 가치와 신앙적 기준을 지켜가기 위해 분별력과 신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61.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 비율은 신앙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했다.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4%가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56%는 신중한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AI가

창조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6.3%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51.6%가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분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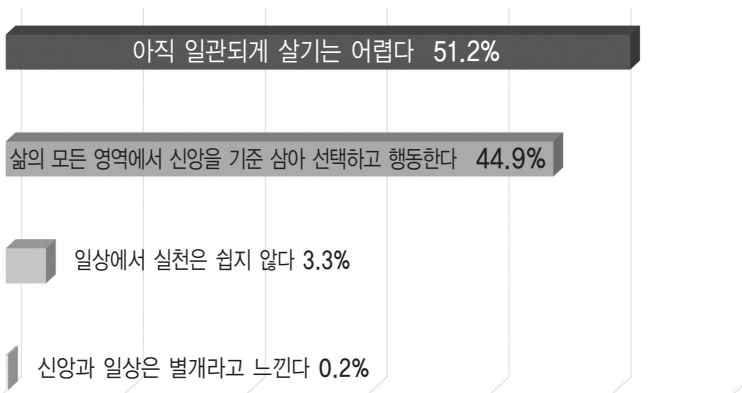
AI의 보안과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와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무려 90.6%가 응답했다. AI 기술이나 예술이 선교에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6.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73.7%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AI 기술이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는 34.7%가 부정적, 63.3%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AI 시대에 자녀가 가져야 할 가치관'으로는 “신앙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78.7%, 이를 위해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분별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78.9%였다. 이는 교회가 기술보다 영적 분별력을 먼저 세워야 함을 보여준다. AI는 위협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언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는 기술을 복음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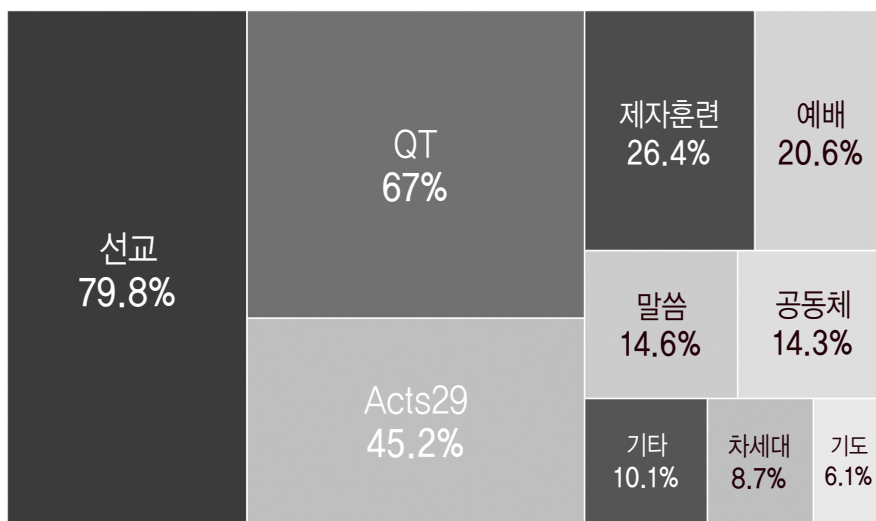
온누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

1. 세대 간 신앙 전수의 구조를 마련
2. 신앙의 실천력을 회복
3. AI 시대 영적 분별력 절실
4. 성경적 세계관 교육 강화
5. 신앙 유산 전수, 이야기와 관계로

신앙과 일상(직장, 가정 등)의 연결 관계 (그림 1)



온누리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그림 2)



복음을 '받은 세대'에서 '살아내는 세대'로

세 번째 분석 영역은 '신앙의 유산과 교회 이미지'에 관한 항목이었다.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복수 선택한 응답은 선교(79.8%), 큐티(67%), Acts29(45.2%), 제자훈련(26.4%), 예배(20.6%) 순이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 여전히 선교 중심의 교회로 견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또한 '다음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신앙의 유산'으로는 QT(67%),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52.1%), 기도하는 삶의 습관(46.9%), 예배의 감격(34.1%), 기도(27%), 선교적 삶의 태도(24.3%), 주일 성수(20.8%) 순이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40주년 이후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역 방향은 말씀 사역 강화(73.7%), 제자 양육(52.3%) 순이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제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다.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섬길 때 복음은 다음세대의 삶에 새겨진다. 온누리교회의 다음 40년은 복음을 기억하는 세대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복음의 다음 장 쓰는 교회

이번 조사는 온누리교회의 지난 40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복음의 역사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동시에 앞으로의 40년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세대 간 신앙 전수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장년의 간증과 청년의 언어가 만나는 세대 통합 예배와 멘토링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신앙의 실천력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와 일상이 이어지는 주중 제자도 훈련을 통해 '삶이 선교가 되는 교회'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AI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절실하다. 기술보다 영성을, 정보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는 디지털 세대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교회에서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앙 유산의 전수는 제도보다 이야기와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진짜 유산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억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시 145:4).

온누리교회의 지난 40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역사였다. 이제 하나님은 그다음 장을 우리 다음세대를 통해 써 가신다. Acts 29,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의 다음 장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끝)



CGN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CGN 다큐 영화 '무명(無名)' KBS 방영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KBS1

CGN 개국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12월 25일(목) 오후 12시 30분 KBS1에서 방영된다.

다큐 영화 '무명(無名)'은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

린 두 일본인 선교사를 조명한 작품이다. 한국기독교언론연합회(CJCK)가 주최한 '2025 한국기독교언론대상 해외선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CGN 대표 전진국 장로는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에 공영방송에서 다큐 영화 '무명(無名)'을 소개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면서 "협오와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포천하랑센터 박승호 센터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했다. 포천시 관내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교회와 기업을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

로 해결하는 등 모범적인 사역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승호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포천하랑센터 강은수 담당목사님과 주성대 장로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포천하랑센터는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박지혜 기자



서초구가족센터 '글로벌 아우라 챔버'

온누리요양센터 방문 연주회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서초구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아우라 챔버'가 지난 12월 9일(화) 온누리요양센터를 방문해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찬송가와 클래식들을 연주하며 어르신들과 음악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초구가족센터 관계자는 "어르

신들이 음악을 들으며 평안을 얻으셨다"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손길들을 통해 일하심을 새삼 느꼈다"고 고백했다.

'글로벌 아우라 챔버'는 8개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오케스트라다. 양재온누리교회 챔버팀이 지도한다. / 박지혜 기자

여성사역본부 '2026 마리아 성경통독'

여성사역본부에서 '2026 마리아 성경통독'을 한다. 2026년 1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2주 동안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8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캠퍼스별 일정과 장소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1월 3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실시한다.

문의: 010-5264-1191

서빙고 권사성가대 대원 모집

서빙고 권사성가대원을 모집한다. 70세 이하 온누리교회 권사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가대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권사는 1월 31일(토)까지 전화(총무: 010-2070-7622, 팀장: 010-4616-1491)로 접수하면 된다.

'CGN 20년의 빛, '내일을 비추다'

12월 27일 오후 6시 50분 방영

CGN 대담 콘텐츠 'CGN 20년의 빛, '내일을 비추다'를 12월 27일(토) 오후 6시 50분 CGN TV에서 방영한다. 가수 김영우가 진행하고, CGN의 주요 프로그램에 함께 해온 성우 장광, 개그우먼 이성미, 방송인 이지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위성에서 인터넷, IPTV, 유튜브,

OTT 플랫폼 '풍당'까지 CGN의 지난 20년 변천사를 돌아보며, 시대에 발맞춰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온 CGN의 사역을 짚어본다. 기독교 OT '풍당'에서는 12월 27일 자정, CGN 유튜브 채널에서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공개한다.

/ 홍하영 기자

"기독교적 가치 실현하는 모범적인 NGO!"

NGO 메디엑세스 첫 번째 정기 이사회 개최

NGO 메디엑세스가 설립 첫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월 9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NGO 메디엑세스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재훈 위임 목사(NGO 메디엑세스 이사장), 김병순 대표(NGO 메디엑세스), NGO 메디엑세스 이사 및 리더십 등 17명이 참석했다. 2025년 사업 결과 보고, 2026년 사업 계획 수립, 신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NGO 메디엑세스 대표 김병순 장로는 "신생 NGO 단체인 메디엑세스가 수많은 과제 속에서도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하며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NGO 메디엑세스 이사회, 임직원들의 헌신, 후원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 덕분"이라면서 "이제 초석이 놓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성도들의 피와 땀, 간절한 기도가 담긴 거룩한 헌물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앞으로 메디엑세스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NGO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재단, '제6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축제'

개척교회 목회자 등 이웃 80명에게 김치 선물

온누리선교재단이 '제6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축제'를 지난 12월 15일(월) 양재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개최했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근무하는 온누리선교재단 소속 직원 37명이 참가했다. 이날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은 김장김치 약 220포기를 직접 담가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 은퇴선교사, 독거노인, 장

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 총 80명에게 전달했다.

박상규 팀장(양재 선교재단 관리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선물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면서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 빛, '온누리 청년부 흠커밍데이'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 사역자들을 섬기는 '온누리 빛'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16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온누리 청년부 흠커밍데이'를 개최했다. 흥반식 장로(중종로공동체), 김종호 장로(경기A공동체), 백종신 장로(성북공동체), 박중현 장로(S브릿지),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 목사들과 장로, 안수집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황능준 목사 기도, 전

용국 목사(양천교회) 찬양과 기도, 김종익 사관(구세군 제원교회) 메시지, 김종호 장로 마무리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종익 사관은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1-46)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사관은 "온누리교회 출신 사역자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도록 더욱 힘쓰자"고 격려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관계기술훈련학교 수료 간증



/ 조일형 집사(이촌공동체)

나를 변화시키는 작은 걸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 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시 16:11).

‘관계기술훈련 트랙1 입문반’ 과정을 마치며,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조장님, 8주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눔을 해 준 파트너에게도 감사하다.

사실, 관계기술훈련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누구와도 관계가 좋은 편인데 굳이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첫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조장님이 보내주신 지침서를 보고 적잖은 당황과 긴장감이 찾아왔다. “한 번 이상 결석 시 미수료, 독후감 여섯 번, 간증문 작성...” 메시지를 읽으며, 이미 예정된 중요한 일정 때문에 세 번이나 결석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조장님과 파트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믿으며 8주차까지 완주했다. 출장 중에는 호텔에서 보충수업을 들으며 끝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조장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블레싱교토’ 참가 간증



/ 이나리 팀장(뮤지컬찬양사역팀)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11월 16일 열린 ‘블레싱교토’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주향한찬양사역팀’과 ‘뮤지컬찬양사역팀’이 처음으로 만났다. 들어본 적 없는 집회, 만나본 적 없는 팀, 감당해본 적 없는 규모의 사역...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경험상 저런 방식은 잘 안 될 텐데...”라며 가난한 땅을 보고 온 열 명의 정탐꾼 같은 불신의 말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계획하며 준비했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 기도제목 가운데 내가 가장 붙들었던 것은 ‘우리가 그 땅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였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토 땅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교토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영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유명한 절들과 달리 교토의 교회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변화는 ‘감사일기’였다. 매일 세 가지씩 감사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 나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 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루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다. 이뿐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거나 참기 어려운 순간에는 배운 대로 가슴을 두드리며 하품을 해보기도 했다. 인생에서 기뻐던 순간을 떠올리며 작성하는 날에는 눈가가 축축해진 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관계 기술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동시에 소중한 자극이 되었다. 이 훈련이 나를 변화시키는 작은 걸음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갈 5:22-23)

이 말씀처럼, 이번 훈련이 내 안에서 작은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과 온유함을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느낀다.

너무나도 작고, 성도도 적었다. 방문자인 우리가 성도보다 많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참으로 뜨거웠다. 열방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깊이 느꼈다.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그곳에서 올려드렸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길가에서도, 여행객들로 가득한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한 영혼의 회심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목소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 교토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두 찬양사역팀, 추운 강가에서 악기 연주로 섬김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손길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었다. 우리의 준비와 계획보다 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앞으로도 교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영종와이미션 2기 수료 간증



/ 나영필 성도(영종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그저 순종으로!

나는 전문인 선교사로 7여 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섬겼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국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가정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를 만났다. 내 안에 고착화된 선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와이미션 훈련을 신청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인가? 아니면 기쁨의 폭발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라고만 생각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내가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야만 하는 줄 알았다. 물론 이런 점도 필요하지만, 와이미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목상을 많이 했다.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영혼을 섬기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의 모습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역량도 안 되는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만 내려다보니 기쁨은커녕 부족함에 정죄감만 쌓였던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4년 차가 되었을 때, 예배

모임 중에 한 친구의 신고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결국 나는 추방이 되었다. 추방 이후,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지혜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억지로 나온 것인가?’ 등의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마음이 아주 힘들고 무너졌다. 그런데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와이미션 훈련을 받으면서 축구 경기에 비유할 수 있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선수와 교체하고,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라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주 강도가 기대되었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했다.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다. 시대 상황에 따라 선교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그저 순종하며 ‘기쁨 폭발’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제자로 살 것이다. 제자 삼으려면 나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한다.

묵상 나눔



/ 정상조 집사(부천온누리교회)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들고, 넘치는 풍요와 극심한 부족함이 공존하는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평’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죽음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믿음 앞에서의 평등’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 언제나 죽음 앞에서의 평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은 오직 나 홀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다.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평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의 공평은 내가 죽는 순간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독한 진실을 깨닫게 한다. 반면, 믿음 앞에서의 평등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인식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설령 죽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두신다 해도, 이 땅에서 죄의 즐거움에 익숙해 살던 죄인에게

는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돌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들판으로 부르시고 동네에 유숙하며 일찍 일어나서 생명의 움이 돋았는지, 사랑의 향기가 퍼졌는지, 꽃피고 열매가 맺었는지 보자”고 말씀하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다(야가 7:11-12).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고.

소천 12/12(금) 서초A 공석급 성도 모친상 고 정시례 12/13(토) 서대문 오종선 집사 모친상, 김수창 집사 빙모상 고 신소제 12/14(일) S브릿지 최윤이 성도 모친상 고 조은진 12/16(화) 서북 이금대 성도 부친상 고 이종환 12/16(화) 강남A 권태현 집사 모친상 고 김필선 12/17(수) 강남C 이석동 집사 모친상 고 김애자 12/17(수) 은라인커뮤니티 고 황지현 성도 12/18(목) 마포 박서근 집사 아내상 고 오복환 12/18(목) 서초B 이향숙 권사 모친상 고 유병숙 12/19(금) 분당B 정효정 집사 시부상 고 이한초	복지재단 은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은누리복지재단 문: 황찬범 팀장(02-3215-3413) 은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은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갈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은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은누리교회 현금은라인 안내 십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 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세미나 기획 및 운영 1명, 잡지 편집기자 1명 형태: 계약직 2명(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 가능),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은누리세라핌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주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은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지휘: 최영은 성가사 입단 문의: 김유미(010-3923-0416) 인천은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	--	---	---

무명

無名

참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싶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화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떠오르는 영화였다.

장진아 (작가_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KBS 1TV



성탄 특집 방송



2025년 12월 25일(목) 낮 12시 30분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처스 12세 이상 관람가

2025 CGN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여 12/31까지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을 완료해 주세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12/31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만 발급됩니다.

문의 | 전화 02-796-2243 E-mail givecgn@cgnmail.net



발급 안내
바로가기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